



자원봉사 홍보전략과 언론대응

전북중앙 정치부 박정미 기자

CONTENTS

자원봉사 홍보전략과 언론 대응

자원봉사 1강

- I. 자원봉사란?
- II. 자원봉사 절차
- III.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 IV.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
- V. 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홍보전략과 언론 대응 2강

홍보전략과 언론 대응 3강





자원봉사

1강



I. 자원봉사란 ?

VOLUNTEERS
NEEDED



자원봉사

- ◆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 volo(의지)
- ◆ 영어의 will
- ◆ Voluntas라는 말 생성
- ◆ 의미 : 자발적인 것, 자주적·임의적 자유의지



자원봉사 활동

- ◆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않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

I. 자원봉사란?

VOLUNTEERS
NEEDED



자원봉사의 특성

- ◆ 자 발 성 :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 하는 것
- ◆ 무보수성 :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
- ◆ 공 익 성 : 이웃과 지역사회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
- ◆ 지 속 성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I. 자원봉사란 ?

VOLUNTEERS
NEEDED



자원봉사자 자세

- ◆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의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습니다
- ◆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바 직책을 충분히 이행합니다.
- ◆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합니다.
- ◆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 ◆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킵니다.
- ◆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 ◆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 ◆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여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II. 자원봉사 절차

VOLUNTEERS
NEEDED



자원봉사 신청절차



- ① www.1365.go.kr 또는 www.Jbvollo.or.kr에 접속
- ② 지역, 분야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조회
- ③ 자원봉사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원봉사 신청

Ⅲ.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VOLUNTEERS
NEEDED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2020. 10월)

(단위 :명)

계	평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564,860	40,347	224,028	76,440	96,389	35,650	20,382	22,372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5,008	5,636	8,198	6,930	6,780	7,677	14,634	14,736



Ⅲ.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VOLUNTEERS
N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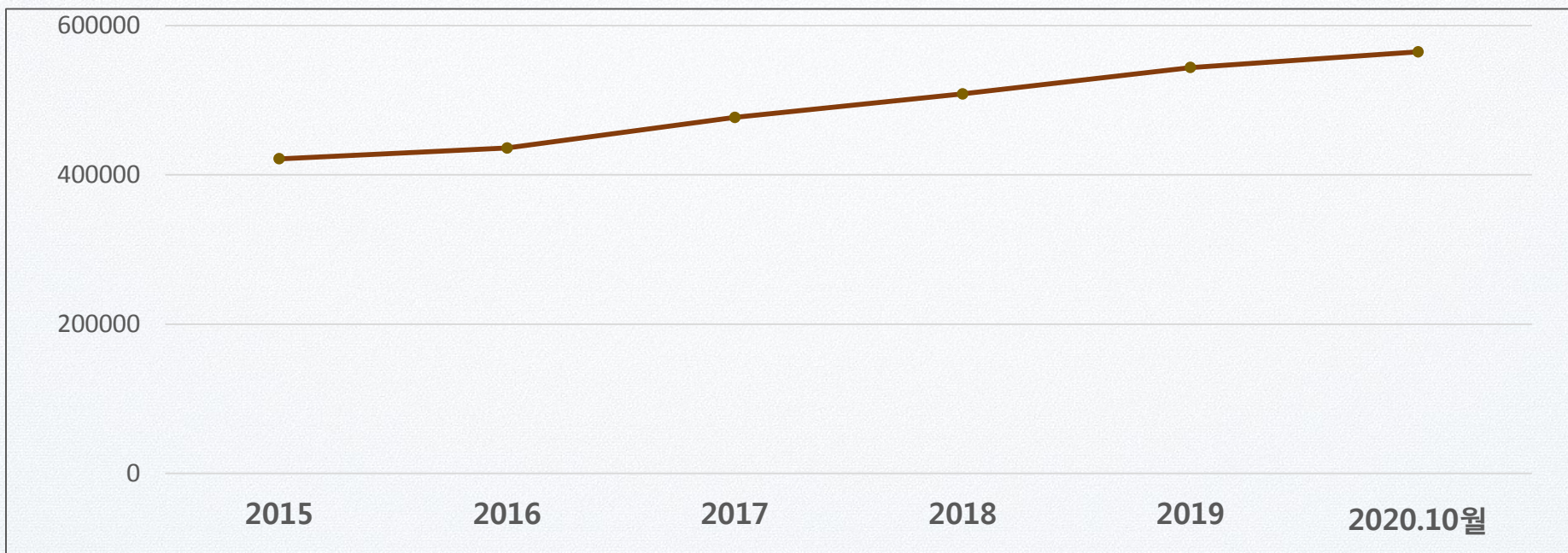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자원봉사자 연도별 증가 : 연평균 28,695명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월
421,381	435,885	476,820	508,300	543,612	564,860



III.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VOLUNTEERS
NEEDED



연령별 및 활동현황

◆ 2020년 연령별 자원봉사자 현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564,860 (100%)	116,396 (20.7)	185,990 (33.2)	60,383 (10.8)	65,529 (11.7)	62,315 (11.1)	40,962 (7.3)	33,285 (6.0)

◆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월
활동인원	165,035	204,560	235,850	207,807	200,658	104,289
등록인원	421,381	435,885	476,820	508,300	543,612	564,860
비율	39.2%	46.9%	49.5%	40.9%	36.9%	18.5%

IV.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S
NEEDED



코로나19 대응 재난봉사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2020.7.9)



추석맞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2020.9.24)

IV.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S
NEEDED



침수피해지역 복구지원



긴급수해복구지원 장수군
(2020.8.9~8.12)



긴급수해복구지원 남원시 송동면
(2020.8.10~8.12)

IV.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S
NEEDED



코로나19 극복 농촌일손돕기



농촌 일손돕기 정읍시 입암면
(2020.6.30)



농촌 일손돕기 군산시 대야면
(2020.6.23)



시니어돌봄봉사단

- ◆ 참여대상 : 도내 만 60세 이상 은퇴자 및 시니어
- ◆ 사업규모 : 50명
- ◆ 활동내용 : 실무교육, 돌봄활동(놀이지도, 전래동화 읽어주기)
- ◆ 활동실적 : 270회 정도



시니어돌봄봉사단 전문교육 (2020.6.23)



청년봉사단

- ◆ 참여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 사업규모 : 20개 팀
- ◆ 활동내용 : 테마기획 봉사활동 추진
- ◆ 활동실적 : 13개 팀 활동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눔,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2020.9.25)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 ◆ 참여대상 : 도내 가족봉사단
- ◆ 사업규모 : 2회
- ◆ 활동내용 : 가족봉사단 워크숍 등
- ◆ 활동실적 : 천연비누, 세정제 등 DIY제품 소외계층에게 전달



전북사랑 기업사회봉사단

- ◆ 참여대상 : 도내 기업
- ◆ 사업규모 : 18회
- ◆ 활동내용 : 의료봉사, 전문봉사, 푸드봉사 등
- ◆ 활동실적 :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농가일손돕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나눔
폭염대비 시원키트 및 건강 꾸러미 나눔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 ◆ 사업대상 : 도내 소외계층, 사회취약계층 및 분야별 재능봉사자
- ◆ 사업규모 : 14회
- ◆ 활동내용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재능봉사단 운영
- ◆ 활동실적 : 소외계층 밀반찬 나눔 등



밀반찬 나눔 부안군 (2020.6.9)



밀반찬 나눔 고창군 (2020.7.2)



홍보전략과 언론 대응

2강

언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언론 홍보 진행 프로세스



-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 사전 자료 수집
- 독자(수요자) 시각으로 작성

- 작성된 보고자료 e-mail로 발송

- 접수기관 : 전북도청 공보과 공보담당

- 배포(접수기관→출입기자단 등 언론인)

- 보도
 - 방송 : 당일 보도
 - 신문 : 익일 보도

2. 보도자료의 구성

When+Who+Where+What+Why+How

- ▶ 제목 및 부제
- ▶ 본문 요약
누가(Who) + 무엇을(What) +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요약
- ▶ 본문
6하 원칙(When+Who+Where+What+Why+How)이 나타나도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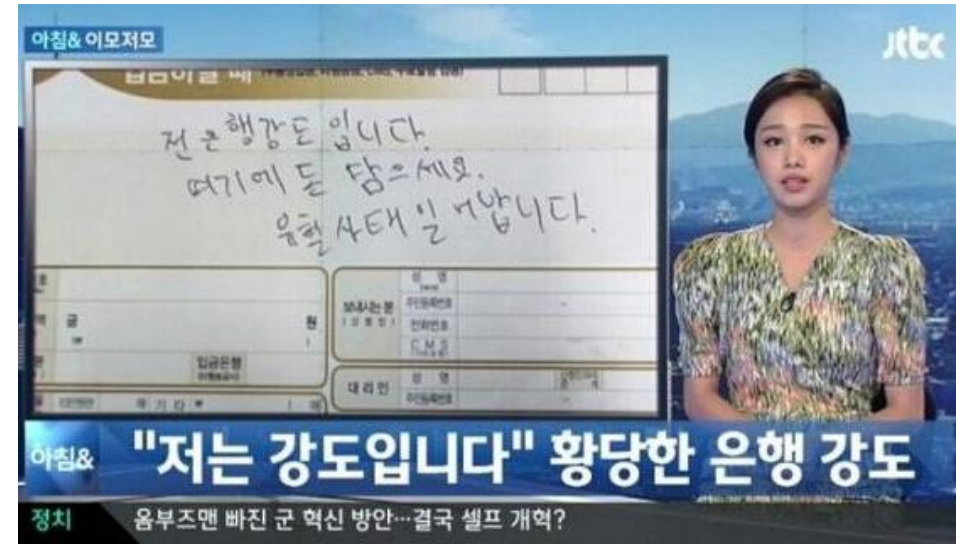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2. 보도자료의 구성-2명의 은행털이범

예문1)

지난 18일(When) 개똥이(Who)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하나은행에서 (Where) 현금 1억 원을(What) 훔쳐 달아났다.

평소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던 그는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Why) 그는 한달 동안 은행 주변을 은행을 물색하는 등 예행연습을 하며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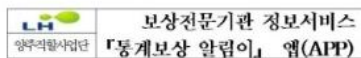


예문2)

“지난 18일(When) 개똥이(Who)는 서울 강남에서(Where) 은행(What)을 털었다.”



3. 보도자료 작성 절차 1



공익사업 보상담당 직원
하여 누구나 손실보상금
가능한 앱을 개발
할사업단 정홍권 부장

정 부장은 분묘 및
현장에서 신속한 보상
과 민원 원스톱 처리
등의 보금 확산 추세
상 조희 앱을 개발하

사업단 관계자에 의하면 정 부장은 사내 및 안되는 정보통신
지구 등 보상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이 이번 앱 개발의 큰 밑

통계보상이란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종류는 주거이전비, 오
보상 외에 이농비, 이아비, 폐업보상, 영업보상의 최저기준

국토해양부 "통제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반인이
장에서 즉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이
되어 버린 스마트 폰을 활용한 실시간 손실보상금
및 현장 업무에서 활용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

만약 이 앱이 보급되어 일반화 된다면 LH 사업지구는 통
공익사업의 보상 주민 및 관계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앱은 현재 사업단에서 LH 자체 심의제도에 제한을 통하여 전 사업지구에서 전
과 활용할 계획이며 정식 마켓 등록까지 고려 중이다.



빛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이대로
- 공공부문 부채의 정확한 산출과 효과적인 관리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4
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과 관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
과 관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부채 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

- 이에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통제 편성과
고차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개편방향: 공공부문 부채통제 중점으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한국
구원 등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 박명재 의원은 "저성장 기조 하에 세수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임박한 국가부채 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

-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업의 부채,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중장부채인

중채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아직 많이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부채의 정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해결방안
구체화 시키고,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돌입!
- 농자산지초지 규제 풀고, 곤충으로 식품원료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농업시설 활용과 농촌주택 마련 쉬워져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4. 9. 3(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전민적 개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 농업을 규모화·전문화 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지니게 하는 것,

②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 본문요약을 먼저 작성
- 가능하면 3줄을 넘기지 말 것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만 기술
- 심플하고, 강력한 표현으로
- 자기 칭찬식 표현이나 기관장 중심 자제

※ 본문 요약만 읽고도 기자들이 **보도가치**
가 있다고 생각하게 작성해야하며, 누가 봐도
한 눈에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중학생 수준)

3. 보도자료 작성 절차 2

1. 본문요약에서 제목 뽑기

- 본문 요약에서 핵심용어를 2~3개 선정해 제목 붙이기
- 기자나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이고 참신한 단어표현 구상

2. 본문 작성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상세하게 기술
- 문장길이를 가급적 짧게
- **사진자료 적극 활용 ※ 사진이 좋으면 채택 확률↑**
 - 보도자료의 생생함과 신뢰감을 더함
 - 의식 중심의 사진보다는 참가자들의 활동 장면을 담은 사진, 클로즈업 사진이 좋음 (2컷~3컷 정도)
 - 사진 용량은 1~2MB가 적당.
 - 사진은 한글파일 본문에 삽입하는 대신 별도 파일로 발송(JPG파일)
- 행사 참여자 인터뷰, 행사 개선점, 새로운 가능성 등으로 마무리



전북중앙 2016-01-11 (월) 002면

다시 읽기

전북중앙신문

2016-01-11 (월) 002면

업무추진비 공개... “너나 잘하세요”

도의회, 도4급이상 공개
조례 제정 움직임에
집행부 “의회 모범 보여라”

전북도의회가 도청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1차례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 공직사회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과 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개토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장수)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 업무추진

비 집행행위 및 공개조례안’을 이번 주 내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사장 △전라북도가 설립한 출연·출자기관의 임원부사장의 업무추진비용내역을 매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위해 사용하는 출처와 함께한 사항들의 수까지 공개토록 강제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썩지른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의원별 지역구 재

량사임비부터 투명성과 책임성부터 강화한 후, 집행부를 압박하라는 것이다. 실제 도의회의 업무추진비만 살펴볼 때, 도 의장은 월 420만 원, 부의장 210만 원, 각 상임위원장 130만 원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 또 의원 1인당 연간 610만 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내역만 간단하게 공개돼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등은 매월이 아닌 분기별 로만 공개해 놓았고, 대부분 위원회별 집행내용도 ‘현안 자문관계자 만찬 간담’ ‘의정활동에 따른 오찬’ 등으로 포괄적이며,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정황 탓에 도의회가 집행부

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명을 요구한 도청 내 모 사무관은 “집행부 4급부터 공무원들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목을 틀어 잡고 길들이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에게 고지절적인 부분이니 만큼 이번 기회에 규칙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게 먼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집행부에게만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집행부 위상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라며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한테 원하는 수준만큼의 투명성을 갖춰 모범을 보인 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9:14

매체 선택

002면

주 합

업무추진비 공개... “너나 잘하세요”

도의회, 도4급이상 공개
조례 제정 움직임에
집행부 “의회 모범 보여라”

전북도의회가 도청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1차례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 공직사회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과 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개토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장수)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 업무추진

비 집행행위 및 공개조례안’을 이번 주 내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 △전라북도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사장 △전라북도가 설립한 출연·출자기관의 임원부사장의 업무추진비용내역을 매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위해 사용하는 출처와 함께한 사항들의 수까지 공개토록 강제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청년취업 기회 확충 일린다

도청에서 지역인재 100명 선발을 위한 청년취업 기회를 확충 일린다. 도청에서는 지역인재 100명 선발을 위한 청년취업 기회를 확충 일린다.

전국 유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전국 유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한다.

50대 이력서 쓰는 아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아빠의 다시 쓰는 이력서

50대, 이력서 쓰는 아빠

내일모레가 환갑인데 오늘도 이력서를 쓴다.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부가 되자

내일이 환갑이 되면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마지막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책은 50대 아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40대 이력서 쓰는 아미

좋은 사진



전체샷



클로즈업샷



3. 보도자료 작성 절차 3

- 보도자료에는 추가 문의에 응할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전달할 내용의 핵심을 부각시켜야
- 정확하게 표현해야
- 문장길이는 가급적 짧게
- 전문용어를 가급적 피해야
(부득이 사용할 경우 주석 처리)
- 형용사나 부사 등 수식어는 빼는 것이
- 보도 가능한 것만 내보내야 합니다.
- 무리한 기사화 요구, 기사의 크기 강요 x
- 보도자료 배포는 가능한 한 담당 기자에게 곧바로 전달
- 되도록 한 날, 한 시에 각 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작성
- 주말의 경우 금요일에 보도자료를 발송.
(사진은 촬영 후 송부)

전라북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공보과 (T.063-280-2032,2193 /F. 280-2299)
<http://www.jeonbuk.go.kr>

보도시점: 2015년 9월 4일(오후)부터

▪ 담당과장 :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
(063-280-3210)

▪ 담당팀장 : 일자리취업지원팀장 송금현
(063-280-2825)

전북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 지역경제진흥원 주관 '제1회 전북일자리창출 & 지역경제활성화 컨퍼런스' 열려
- 4일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자리관계자 150여명 참가
- 김종국·강정옥·김순원·김보금·김종서 등 도내 경제사회전문가 패널로
- 민관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가는 데에 역량 모아 나가야

-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진흥원(이사장 정종균), 최규성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1회 전북일자리창출 & 지역경제활성화 컨퍼런스」를 4일(금)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최규성·이상직·김춘진 국회의원,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9)
2015.09.05(토)

2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6632, Fax (02) 788-0344
(570-210)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4번지, 6층 Tel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h331nate.com @jh331nate www.facebook.com/jh331nate blog.naver.com/jh331nate
담당 : 김영진 비서관(010-6478-8687, kmj910@nate.com)

동반성장 손 놓은 정부

최근 5년간 공기업 출연금, 대기업 15.4% 수준...출연을 40% 불과, 올해 추가 약정 전무
영역에 원상환 16개 대기업 평균 1억8,800만원 '쪼갠' 출연...약속 지키면 적게 약정
전정희 의원, "현 정부 동반성장 추진의지 미약...약감서 관련 제도 면밀히 살펴볼 것"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이 약속한 출연금도 절반만 견하면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걸친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약속한 9,063억원의 47.9%에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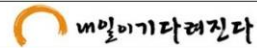
공기업은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다.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정하고 3,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 출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표1 참조).

당초 150억원을 약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34억2,700만원을 출연,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출연율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협약금 자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올해 들어 한 톨도 내놓지 않고 있다(표2 참조).



보도자료

2012년 8월 8일(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화관 5층 ☎ 276-9028 Fax 274-9028
전북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 ○○○ (010-7178-○○○○)

정세균 후보, 첫 전국 선대본회의 고향 전북서 개최

- 고향 전북서 처음 있는 전국 선대본 회의 개최, '의미 있는 출발' 선언
- 선대본 회의,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소화하며 전북에 애정 과시

정세균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처음 열리는 '내여친(내일을 여는 친구들) 전국 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며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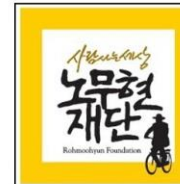
내여친 전북선거대책본부는 16일 오후 3시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제1회 전국 선대본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세균 후보를 비롯해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병헌 총괄본부장, 최재성 전략기획본부장 등 선대본부 임원들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도·시·군의원,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거 전략 및 현황보고, 질의 및 건의, 제안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종전 선대본 회의가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일반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으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테이블을 없애고 의자 역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 상대를 마주 바라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허례허식과 격식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페이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수)

문의 :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 사무처장(☎ 010-○○○○-○○○○)

안도현 상임대표, 검찰 소환은 "표현의 자유 억압"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SNS를 통해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된 사실관계 따진 일로 검찰에서 출두 요구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안도현 시인(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상임대표)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시인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으로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보물 제569-4호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트위터를 통해 요구한바 있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6년 당시에는 청와대, 그 후 대부분의 문서에는 소장자가 박근혜로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그러나 안 의사의 유묵을 본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안 시인은 유묵 소장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트위터를 통해 요구했었다.

이번 검찰 출두와 관련, 이종선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SNS상의 트윗 활동에 사법부의 칼을 들이대는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처장은 또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기 검열을 확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을 미리부터 잘라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꿀릴 게 없으니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끝>

4. 보도자료 배포

1. 배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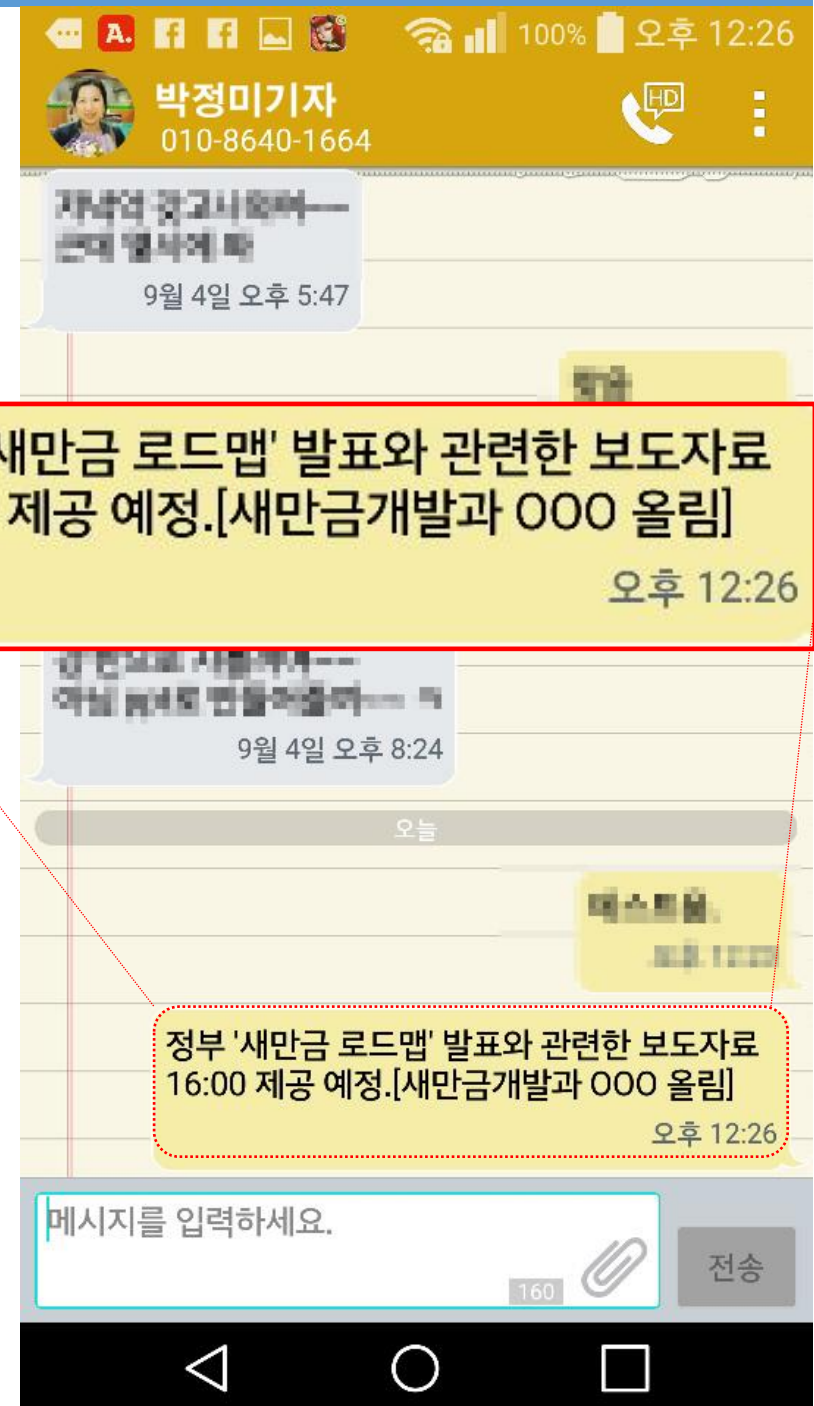
-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는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언론사의 기사 원고 및 편집 마감 시간을 고려해 접수기관에 사전 배포
- 기자들이 기사 취재가 한창인 오전 중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음.
- 언론사 편집회의 시간 오후 2시~오후 3시경

※ **편집회의** : 각 출입처 기자들이 취재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사를 어느 면(1면top, 1면 중, 단신 등)에 넣을지 논의하는 회의

2. 배포가 늦어지는 경우

- 특히, 편집회의 전에는 무조건 보내야 하며 부득이 늦을 경우 미리 문자로 보도자료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지.

예) 새만금 로드맵 발표, 관련 보도자료 16:00 제공 예정 [전북도청 새만금 개발과 ○○○ 올림]



5.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사전 예방

(방어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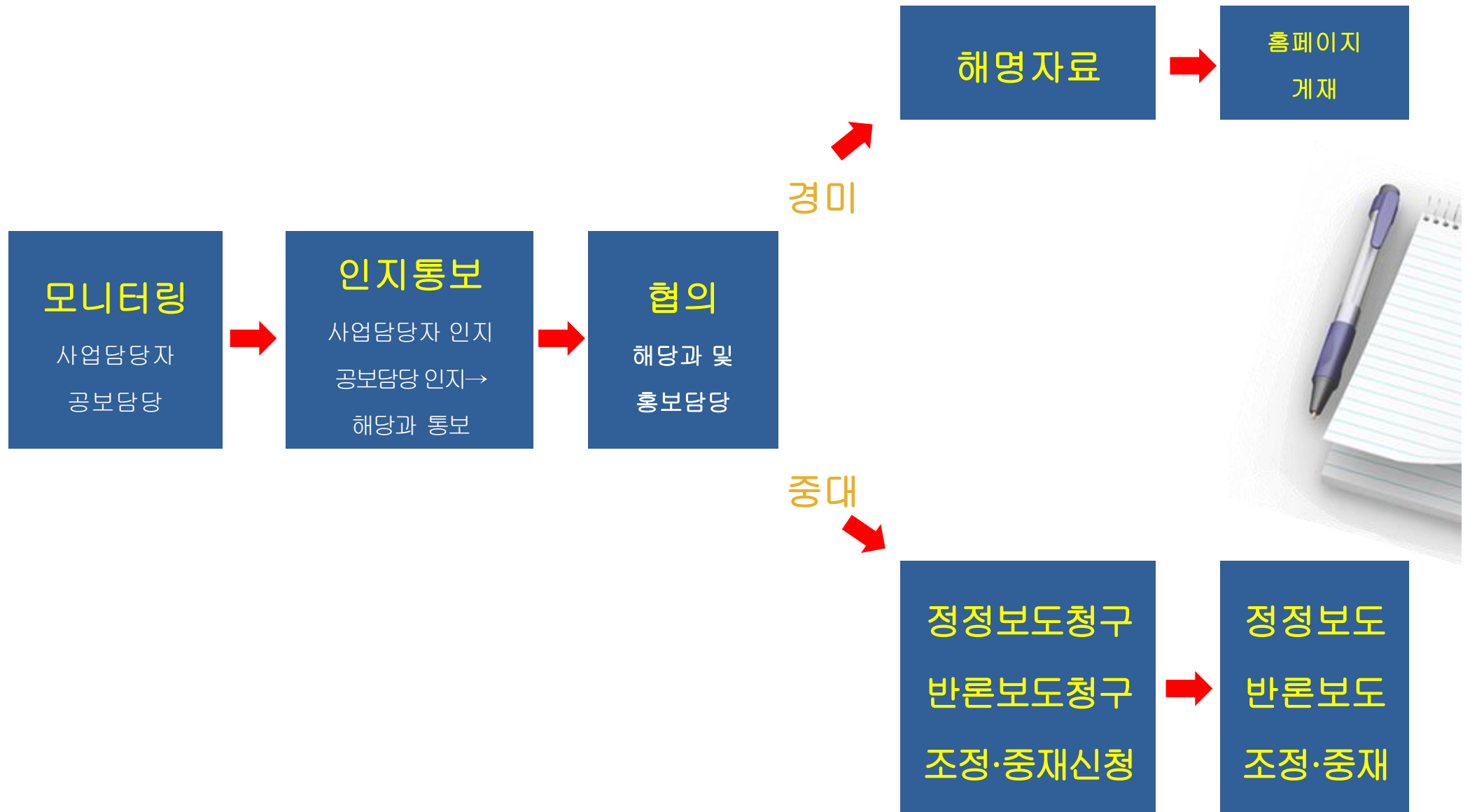
- 단축 축약된 보도 관행
핵심 메시지를 명료하게 표현
- 마감시간의 압박 : 마감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보도자료 전달
- 취재원의 문제 : 충분한 자료와 사전준비로 의사전달 명확하게
- 취재진의 전문지식 부족 및 정보부족 : 알기 쉽도록 충분한 설명과 배경 자료 (Back Data) 제공

사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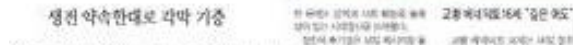
(확산방지)

- 문제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타 언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
- 보도기사에 대한 요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 해명 자료 작성
→ 필요시 브리핑 및 간담회 병행
- 해명자료는 당일 작성해 해당 언론 뿐 아니라 타 언론에도 발송 (확산 방지 차원)

6. 대응 절차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오보에 대한 사과문



알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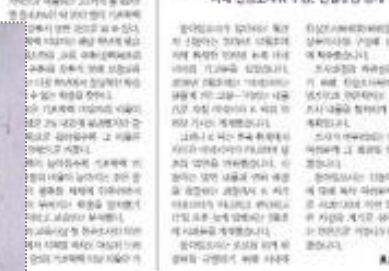
◇본보가 미국 패밀리라디오의 종말론을 다룬 지난달 21일자 B6면 '또 종말론... 내일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주모 씨(35) 등의 주장과 관련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시한부종말론은 교회 교리에 없습니다. 구원은 재앙을 면하는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끝까지 믿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Y2K 당시 사회 각계에서 비상물품을 준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십사만사천명 외에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 받는다(요한계시록 7장 1~9절)'고 믿습니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5월 사이에 교회를 다닌 신도 가운데 해당 연령대에 주 씨 성을 가진 성도는 없었습니다.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20일자 기사 및 사설에서, 행정자치부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낸 토지소유 통계를 들어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상위 5%의 소유집중이 더 심해진 것으로 실상을 왜곡, 과장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정부

가 발표한 보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서 수치 조작이나 왜곡이 없었고, 불평등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고, 토지보유 세대의 비율도 조선일보가 언급한 79.1%가 아니라 57.4%라고 밝혀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행정자치부 반론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지난 21일자 A6면 "중, 과감한 조치로 '북한의 인질'에서 벗어나라" 기사 중 '쥘따페이(左大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과 허칭(河淸) 저장대 교수 등 80여명이 발표한 글'이란 부분과 관련, 이 글은 학자들이 단체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한 회원이 쓴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거명된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

[행정자치부의 반론요청에 따라 조선일보가 2005년 8월 12일자에 오보 사과문 게재]

총인구 1%가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대해 사설로 "통계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행정자치부의 반론요청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7. 침해 구제방법





홍보전략과 언론 대응

3강

언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1. 추가취재에 대비하라

- 기자가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의문이 나 추가로 취재할 경우에 대비해 연락 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함
- 무엇을 물어 보려 해도 기자는 물론 보도자료 담당자조차 어디에 어떻게 연락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
- 보도자료 제공일자를 통해 언제 보도될 지를 명시. 특히 엠바고(Embargo)가 걸린 보도자료의 경우 '2014년 3월 10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와 같이 해제날짜와 시간을 명시
 - ※ 엠바고(Embargo) :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
 - ※ 추가 취재에 대비하는 팁→ 백데이터(Back Data)

백데이터 예시

예시1)

새만금 명칭 공모, 3명 수상

* 백데이터

- ▲ 3명이 왜, 어떻게 타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간략한 내용
- ▲ 3명 수상자 사진
- ▲ 3명 연락처 등등

예시2)

전라북도청 2014년도 우수 광역자치단체 '상위권'

* 백데이터

- ▲ 자료 출처(안전행정부, 민주당 국회 ○○○의원 등)
- ▲ 상위권 성적 거두게 된 배경과 평가의 기준 등등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2. 섹시하고 톡톡 튀는 제목으로 승부하라.

■ 천편일률적 제목 탈피
→ 톡톡 튀는 제목과 리드문 작성

■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가 담당기자에게 온다.
여기서 내 보도자료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제목 글씨체는 고딕 또는 견고딕, 본문은 한컴바탕, 휴먼명조 선호하고 13포인트, 한 단락별로 한 칸씩 단락 나누기

예시1)

전북도, 복지사업 부정수급 점검 추진

⇒ 道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예시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 대책' 마련

⇒ 방통위, 인터넷전화 불법해킹.. '요금폭탄' 막는다!

예시3)

전북도,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전북도, '韓문화 수도' 조성 본궤도

예시4)

전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강화 및 투명성 교육 추진

⇒ 道, 보조금 혈세낭비 차단 팔 걷어.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3. 간결한 리드가 매력적이다.

■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불필요한 수식을 넣지 말고 핵심만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전달효과를 줄 수 있음

■ 리드는 기사전체를 압축하거나 핵심을 전달하는 가능한 짧은 문장(함축적인 문장)으로 작성한다. 전문은 독자에게 기사를 읽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흡인력을 가져야 한다

■ 중요한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성하는 역피라미드▽형태
(편집자는 기사를 아래에서부터 잘라냄)

예시 1)

전라북도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결정을 위하여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 및 시·도(경남, 충남, 전남) 실무자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를 전주, 정읍, 남원, 무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오는 11일부터 4일간 도 주관하에 각 권역별 지가상활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158자) (×)

⇒ 전북도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인접 시군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47자) (○)

예시2)

전라북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라북도 내 영세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등을 해소하기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기반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99자) (×)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에 올해 30억 원이 지원된다.(52자) (○)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4. 정확하게 표현하라.



■ 멋이나 기교를 부리지 말고 사실만을 간단명료하게 표현.

상당 부분의 오보나 왜곡, 과잉보도 등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멋이나 기교를 부린 보도자료가 원인이 되기도 함.

예시 1)

이날 행사에는 무주 구천동 주민과 계북면 협의회 회장단, 이장단 협의회원, 반상회 회원 등 많은 주민과 무주군청, 무주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참가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된 의지를 보이며 민관이 함께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5. 제발, 긴 문장을 피하라 ①

■ 여러 가지 사실을 한 문장에 다 넣으려고 하다간 오히려 산만한 보도자료가 됨. 중요한 사실부터 되도록 한 문장으로 짧게 기술

■ 한 문장에 취지가 다른 정보를 끼워 넣지 않으며 다른 정보는 별개 문장으로 처리하는 별항 주의를 취한다

■ 중요한 내용이 뒤쪽에 나와 편집과정에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복문사절, 단문환영)

■ 적어도 3줄 이상(80자)을 넘기지 말 것

나쁜예 1) ○○○에서는 초4~고1을 대상으로 350여종의 다양한 학습콘텐츠 및 학급 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맞춤형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북 e평가에서는 매일 학습지를 제공받아 문제지, 해답, 해설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년4회 온라인 모의고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국학력 수준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어 학습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206자)

나쁜예 2)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수용적인 자세만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본 연수를 듣고 학부모대표인 ○○○ 회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학부모교실 무료강좌가 수시로 있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무 좋다면서 이런 좋은 연수를 받게 해주신 학교측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273자)

나쁜예 3) 이 학교 전교생 1~3학년은 왕복 2km코스를 4~6학년은 왕복 3.6km의 코스(09시 30분~ 12시)를 학교 앞 소양성당에 집결, 출발하여 터널-정자나무-망표교-망표회관-상망표 노인회관-상망표 버스 종점(반환점)-출발지인 소양성당까지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친구들과 함께 뛰면서 밝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교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운동의 생활화로 운동부족과 기초체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 실시해왔던 아침운동의 결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300자)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5. 제발, 긴 문장을 피하라 ②

원문)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6백억원 규모에 공장 3개 신설과 시설관리 센터를 짓는 공사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로 건설되는데, 1단계는 2015~2016년이며 2단계는 2017~2018년, 3단계는 2019~2020년 등이고 각 단계별 사업비는 각 1백억, 2백억, 3백억원으로 책정되었다. (×)

수정)

- ① 도의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 ② 1단계 100억 원, 2단계 200억 원, 3단계 300억 원 등 총 600억 원이 투입된다.
- ③ 이 사업에는 3곳의 공장과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될 관리센터가 각각 건설 될 예정이다. (○)

“간첩도 그렇게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부터 해가지고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고 열심히 하고…”

| 2015년 4월 15일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

OhmyNews

사진 청와대

번역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면 모두가 간첩신고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세월호와 간첩 신고 무슨 관계?)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 2015년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OhmyNews

사진 청와대

번역

올해 달성할 핵심 목표를 정하면, 한눈 팔지 말고 목표완수를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한다.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6. 7. 8.

6. 전문용어를 피하라

너무 복잡하고 상세한 자료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기자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뉴스의 관점을 흐리게 함. 또 담당 기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보나 왜곡 보도가 발생할 수 있음.

7. 형용사나 부사 등 수식어를 빼라!

-수식어들 또한 명확한 포인트나 관점을 흐리게 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기자는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험란한 형용사나 수식어의 사용보다는 기자의 명확한 이해와 관점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

8. 자화자찬을 자제하라

-사실관계는 뒷전인 채 기관의 치적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역효과

-치적도 팩트(fact) 위주로 서술하되 간간이 표 안 나게 양념처럼 삽입

예시)

○○○센터장은 ○○업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센터장은 지난 10월 한 달여간 담당직원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기간을 수 차례 오가며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9. 최대한 반복을 피하라

■ 동일한 용어나 표현을 가능한 한 다시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번은 '주장했다'로 썼으면 그 다음 줄에서는 '촉구했다', '밝혔다', '설명했다' 등으로 다른 표현을 쓴다.

■ 전라북도청→전북도청 또는 전북도(처음)→도(나중), 교육과학기술부(처음)→교과부(나중)

■ 하였다→했다, 하여→해→, 이와 같이→이처럼

■ 날짜는 원칙적으로 명시하되 보도자료 형식을 갖출 경우 '년(年)' '월(月)' '요일'은 빼고 '일(日)자만, 시간은 24시제가 아닌 오전, 오후, 낮, 자정 등 12시제로

예시 1)

○○국장은 2019년 3월 5일(월) 14시 ○○회관에서(×)

⇒ ○○국장은 5일 오후 2시 ○○회관에서(○)

예시 2)

○○기관은 2019. 09. 08.(수) ~ 09. 10.(금)까지 행정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 ○○기관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원 강당에서 행정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9. 최대한 반복을 피하라

■ 요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함

예시 1) 전북도는 기존 수요일에 개최했던 간부회의를 매주 월요일 오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인터뷰는 2단락 정도로 구분

예시 1) ○○기관 ○○○ 국장은 "이번 선발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적성과 흥미도가 좋고 비교적 성적이 우수하여 과학중점과정 운영 과정에 대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좋은 평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 국장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도 높을뿐더러 성적도 우수해 과학중점과정 운영 과정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좋은 평가가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번 쓰고 난 후 다시 쓸 때는 최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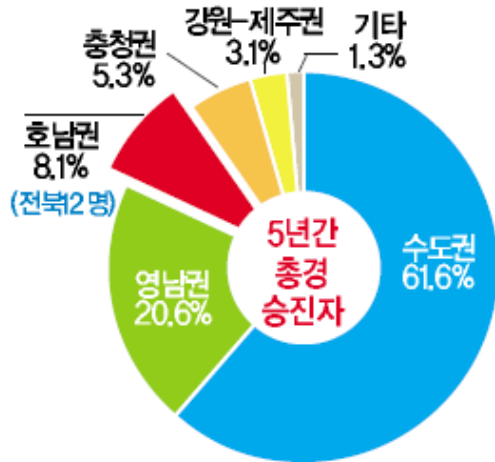
예시 1) 2013년 → 작년(×), 지난해(○)

예시 2) 전북도는 2013년 인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은 홍길동 군으로, 그는 오는 2016년 안전행정부 인사 승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홍군은 내년 승진과 함께 관련 계열 박사학위 시험을 위한 공부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도자료 작성 10가지 Tip-10. 보도될 확률을 높여라.



■ 신문 매체의 경우 사진이나 **그래픽, 도표** 등을 함께 제공해 주면 보도될 확률이 커지고 기사 자체도 커짐

■ 사진은 인쇄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진캡션**을 함께 덧붙여야 함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도청을 방문한 도레이사 이영관 회장과 그의 면담자리에서 "전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레이 첨단소재와 휴수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도 제공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시군	해수욕장	이용객수(명)	
		14년도	15년도
계		233,538	282,889
군산시	선유도	31,931	44,303
	구시포	18,493	45,800
고창군	동호	22,612	17,325
	모항	72,810	65,780
부안군	위도	6,042	3,779
	고사포	46,000	43,694
	격포	35,650	62,208



해수욕장 찾는 피서객 늘었다

메르스 종식에 폭염 이어져
모항등 7곳 13%증가 28만명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시군	해수욕장	이용객수(명)	
		14년도	15년도
계		233,538	282,889
군산시	선유도	31,931	44,303
	구시포	18,493	45,800
고창군	동호	22,612	17,325
	모항	72,810	65,780
부안군	위도	6,042	3,779
	고사포	46,000	43,694
	격포	35,650	62,208

전북지역 7개소 해수욕장이 지난 23일 일제히 폐장한 가운데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6월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피서객이 감소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고 광복절 대체 휴무일 지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은 장기간 폭염과 맑은 날씨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피서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전년보다 13% 증가한 28만2천800여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24만9천900여 명보다 3

만2천9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해수욕장별로는 고창 구시포가 147%, 부안 격포 74%, 군산 선유도가 38%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는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를 위해 올해 지자체로 이관된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138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편의시설 정비 등 해수욕장 환경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요원 인건비·장비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해파리 피해예방 약품 지원 등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해양,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 시설물 철거와 쓰레기 청소 등 해수욕장 주변 정리를 시행 폐장 이후에도 깨끗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해수욕장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상품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휴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언론보도 Knowhow 1. 시간을 지켜라

- 아무리 좋은 보도자료라 해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 방송사 정오기사(11:00~12:00) 송고 전이나 신문사 편집회의 시간(14:30~15:00) 전에는 담당 기자가 보도자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보도자료 발송 예정, 문자메시지 사전 발송)
 - 월요일 보도를 원하는 경우 금요일 2시 이전에 기자가 보도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 먼저 보도자료를 보내고 사진은 늦어도 4시 이전(평일 기준)
 - 편집회의를 통해 어떤 기사가 어느 면에 들어갈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회의시간 이후에 보내지는 자료는 특별히 중요한 기사가 아니고서는 데스크와 편집부에 기자가 아쉬운 소리를 하며 집어 넣어야만 가능.
 - 시간대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게재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 기자의 입장에서 **기사적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고 생각하라
- NO! 1)** 오전 7시에 한 캠페인성 행사를 오후 7시에 보낸 사례
NO! 2) 4일전, 5일전 행사 내용을 보내놓고 기사화 되기를 바라는 건 '도둑 심보'

늦게 보내고 다음날 보도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2. 시의 적절한 내용인가?

■ 최소한 하루 전날 기사여야 함
NO! 1) 10월6일(수) 행사한 기사, 10월8일(금) 보도요청->10월11일(월) 보도

■ 행사 개최 예정기사로 나갈 것인지, 행사 개최 후 기사로 나갈 것인지 판단하여 전자의 경우 하루나 이틀, 길게는 사흘 전, 후자는 당일 (미리 써 놓아야함) 배포 원칙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했다. : 시제변경은 필수)

3. 보도 가능한 것만 내보내라

■ 보도자료는 반드시 완결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

■ 추정이나 추측, 잘 모르는 사항은 결코 담지 말아야 하며, 보도되어도 관참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 기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계획이나 시책을 제공할 경우 커다란 **파문**을 유발할 수 있음.

4. 담당기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담당기자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함. **(확인 필수)**

■ 분야별, 지역별 담당기자가 있어 어느 기자에게 보내져야 하는 지 파악 중요. 영역 존중 원칙에 따라 타켓을 설정하라.

■ 도청 관련 자료라고 해서 모두 도청 출입기자에게만 보내지 않는다. 도 출입기자 뿐 아니라 다른 부서 기자에게도 전달.

• 도청

→도 출입기자

• 전북도 중소기업진흥센터

→경제부 기자

• 도청 문화예술과

→도 출입기자 및 문화부 기자

• 도 체육 관련 과

→도 출입기자 및 체육부 기자

언론보도 Knowhow 5. 한 날 한 시에 보내라.

■ 특별한 기획기사나, 기고, 인터뷰 등이 아닌 경우의 보도자료는 한 날 한 시에 모든 언론매체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늘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은 일단 타사에 게재된 기사는 다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크게 다루어져야 할 뉴스가 한 언론사에 1단으로라도 처리되면 그 보다 큰 후속 기사를 기대하기 힘 듬. 이를 위해서는 조간은 늦어도 오후 2시 이전까지 기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적인 취재의 경우 보도자료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취재라 하더라도 '중요한(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자의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함

예)

- 새만금 로드맵 발표
- 전북도 5개년 사업 계획 발표
- 동부산악권 발전계획 발표
- 2015년 전북도 예산안 발표
- ○○○ 사안에 대한 전북도 입장 등

송하진 전북지사 2014년 12월 3일 전북도 국가예산 6조원 확보 기자회견.



언론보도 Knowhow 6. 문자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라!

■ “손에 쥐어 주고 입에 떠 넣어주어라”

■ 기자도 사람이다. 정감 어린 보도 당부 문자

■ “다음날 보도가 안됐다거나, 기사의 크기에 대해 기자에게 서운해 하지 말아주세요”(언론사 편집 방향 인정)

■ 보도에 대한 감사 문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기자님. ○○행사자료 보냅니다. 지면 할애 부탁드립니다.<보건위생과 홍길동>

○○○기자님. 저희 과에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수군청 홍보과 홍길동 올림>

매번 이렇게 부탁만 드리는군요. 내일자 신문에서 ○○○기자의 멋진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청 귀염둥이 이순신 올림>

○○○기자님. 좋은기사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사 부탁드립니다.<보건위생과 홍길동>

박기자님, 톡톡 튀는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 김길동 올림>



언론보도 Knowhow 7. 지켜야할, 지켜져야할 에티켓

■ 보도자료 형식을 갖추는 것

■ **보도자료 파일명, 사진 파일명**을 쓰는 것은 기본
텍스트 파일의 경우 '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작성.hwp', 사진
파일의 경우 'DSC130815', 'P60312' 로 보내는 경우 허다. 반드시
파일명을 기재할 것

■ **보도자료 파일명**

정책협의회 보도자료.hwp
아셈재무차관 회의 보도자료.hwp

■ **사진 파일명**

새만금 현장 점검 사진1.jpg
새만금 현장 점검 사진2.jpg

■ 보내는 사람 메일에 제목 필히 기재 할 것. '제목없음' '보도자
료'라고 적힌 제목이 허다.

■ 사진 사이즈,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도 안 됨. 1024*768 사이
즈(컴퓨터 모니터 크기 정도), 용량은 1M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JPG파일로 따로 저장해 전송

■ **한글 파일에 사진 첨부하지 말 것**

■ 신문에는 1컷의 사진만. 사진 선택은 본인인. 최대 3컷을 넘
기지 말아야 하지만, 중요 보도 또는 기획기사 건의 경우 다양
한게 보내야. 것.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9)

2015.09.05(토)

2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8632, Fax. (02) 788-0344
670-210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4번지, 6층 1차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hale.or.kr, e-mail jh3311@jhale.or.kr, www.facebook.com/jhv411 blog.naver.com/jhv331100
담당 : 김영진 비서관(010-6478-8887, kmj910@nate.com)

동반성장 손 놓은 정부

최근 5년간 공기업 출연금, 대기업 15.4% 수준...출연을 40% 불과, 올해 추가 예정 정부
협약금 완납한 16개 대기업 평균 1억8,800만원 '위교라' 출연...약속 지키면 적게 예정
전정의 의원, "현 정부 동반성장 추진의지 미약...국감서 관련 제도 면밀히 살펴 것"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의 15%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이 약속한 출연금도 절반만 건히면서 현 정부
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두선(口頭線)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제
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
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건히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약속한 9,063억원의 47.9%에 수준에 그쳤다.

공기업은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
다.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속하고 3,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다, 출
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표1 참조).

당초 150억원을 예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34억2,700만원을 출연,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22.8%의 출연율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협약금 자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올해 들
어 한 톨도 내놓지 않고 있다(표2 참조).



언론보도 Knowhow 8. 따뜻한 차 한잔의 소중함.

기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와이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절친
누군가의 어떠한 존재이다.



■ 뜬금 없는 부탁을 말라. (평소 유대관계의 중요성)

■ 평소 따뜻한 차 한잔. (불가근 불가원이지만, 인간사 이치가 그렇듯 기자도 마음이 가는 이들에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 횃집에 대한 고찰(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대접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

■ 요즘 밥 굶는 사람 없다. 맛집으로 승부하라 : 외식에 길들여진 기자. 잘 차려진 고급 식당의 음식보다 저렴한 가격 이면서도 소탈하고 맛깔난 음식이 최고. 함께 자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점심은 2시를 넘기지 말 것 : 기자들은 늘 바쁘답니다. 어슬렁거리며 한가하게 차 얻어 마시고 다니지만 머릿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와 점심 전후 시간대는 '황금시간대'로 마음이 바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9)
2015.09.05(토)

2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6632, Fax (02) 788-0344
(570-210)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4번지, 6층 Tel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h331nate.com @jh331nate www.facebook.com/jh331nate blog.naver.com/jh331nate
담당 : 김영진 비서관(010-6478-8687, kmj910@nate.com)

동반성장 손 놓은 정부

최근 5년간 공기업 출연금, 대기업 15.4% 수준...출연을 40% 불과, 올해 추가 약정 전무
영역에 원상환 16개 대기업 평균 1억8,800만원 '쪼갠' 출연...약속 지키면 적게 약정
전정희 의원, "현 정부 동반성장 추진의지 미약...약감서 관련 제도 면밀히 살필 것"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이 약속한 출연금도 절반만 견하면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걸친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약속한 9,063억원의 47.9%에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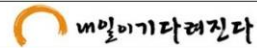
공기업은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다.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정하고 3,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 출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표1 참조).

당초 150억원을 약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34억2,700만원을 출연,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출연율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협약금 자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올해 들어 한 톨도 내놓지 않고 있다(표2 참조).



보도자료

2012년 8월 8일(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화관 5층 ☎ 276-9028 Fax 274-9028
전북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 ○○○ (010-7178-○○○○)

정세균 후보, 첫 전국 선대본회의 고향 전북서 개최

- 고향 전북서 처음 있는 전국 선대본 회의 개최, '의미 있는 출발' 선언
- 선대본 회의,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소화하며 전북에 애정 과시

정세균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처음 열리는 '내여친(내일을 여는 친구들) 전국 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며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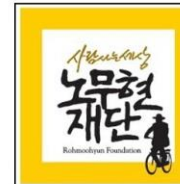
내여친 전북선거대책본부는 16일 오후 3시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제1회 전국 선대본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세균 후보를 비롯해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병헌 총괄본부장, 최재성 전략기획본부장 등 선대본부 임원들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도·시·군의원,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거 전략 및 현황보고, 질의 및 건의, 제안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종전 선대본 회의가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일반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으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테이블을 없애고 의자 역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 상대를 마주 바라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허례허식과 격식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페이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수)

문의 :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 사무처장(☎ 010-○○○○-○○○○)

안도현 상임대표, 검찰 소환은 "표현의 자유 억압"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SNS를 통해 안중근 의사 유목과 관련된 사실관계 따진 일로 검찰에서 출두 요구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안도현 시인(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상임대표)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시인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으로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보물 제569-4호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트위터를 통해 요구한바 있다.

안 의사의 유목은 1910년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6년 당시에는 청와대, 그 후 대부분의 문서에는 소장자가 박근혜로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그러나 안 의사의 유목을 본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안 시인은 유목 소장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트위터를 통해 요구했었다.

이번 검찰 출두와 관련, 이종선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SNS상의 트윗 활동에 사법부의 칼을 들이대는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처장은 또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기 검열을 확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을 미리부터 잘라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꿀릴 게 없으니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끝>

감사합니다.